

‘쌀파동’ 부른 농업문제의 실상을 벗긴다

책으로 읽는 한국의 농업 농촌 농민 문제 총정검

“쌀개방 반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떠돌고 있다. 하지만 이 유행은, 당분간으로 그칠 것이 아니기에, 우리 국민들도 먹고 살아야 하며 그 주식이 쌀이기에 유행으로 그치지 않는다. 지금 거리에서 들려오는 쌀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는 오늘날의 문제이기보다는 ‘오늘 이후’의 문제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전 농수산부장관 허신행씨는 장관취임과 거의 때를 같이 해서 펴낸 「신농업 : 한국농업의 21세기 전략」(김영사) ‘책머리에’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오후 학교로부터의 귀가길에는 땀범벅이 된 채 통나무를 이고 진 행렬과 마주치면서 ‘농민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배고픔도 잊은 적이 많았습니다.”

농민 때문에 배고픔도 잊을 정도로 농민에 대한 사랑(?)이 강한 허신행 장관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서 쌀시장을 개방하고자 말했다. 대통령선거 당시 “대통령직을 내놓고라도 쌀시장개방을 막겠다”는 김영삼 대통령도 쌀시장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사과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쌀파동 이후 관련도서 두배나 더 팔려

허신행 장관의 책을 보면 그의 협상과 정부의 행보가 이미 예견된 사항임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다. 허 장관이 제네바에 도착하고 처음 미국과 담판을 짓고 나섰을 때 “만족한 협상이었다”라고 한 말의 이면에는 그의 예측대로(농민의 생각과는 다른)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뜻을 깔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허 장관의 생각과는 달리 막상 쌀 시장개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급작스럽게 다가오자 모든 국민들은 미온적인 정부의 대응과 향후 농업정책의 부재, 쌀시장개방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민족은 쌀을 중심으로 먹거리를 구하고 또 문화와 사회, 정치, 경제가 쌀을 중심으로 형성 발전되었다. 역사교과서의 앞부분에 ‘농경’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지금도 우리의 주식이 쌀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쌀 수입개방의 문제가 농민들만의 문제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농촌의 변화는 곧 한국사회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쌀과 문화」(이춘녕, 서울대출판부) 「재배식물의 기원」(다나카 마사타케, 전과과학사)는 쌀과 문화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쌀시장 개방에 따른 우려는 오늘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늘 이후’의 문제라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 그러나, 그 오늘 이후의 문제는 ‘오늘 이전’부터 이미 충분히 예견돼 왔다. 쌀파동을 부른 우리 농업의 문제는 과거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한국농업의 여러 국면들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지금까지 나온 각종 관련도서들을 점검한다.

그리고 쌀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세계인의 주식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나카 마사타케의 시각은 일본의 것이어서 우리의 문화와 동떨어져 있지만 재배식물의 기원에 대한 한가지 ‘실’을 보여주고 있다.

「쌀과 문화」는, 반면에 우리 사회와 벼(또는 쌀)가 우리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음을 지적한다. 이춘녕 교수는 벼발상설의 하나로 고대 인도발상설(기원전 1500~2000년)이 가장 유력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1970년 태국 논늪타에서 발견된 뼈검질 이 기원전 3500년의 것이면서 벼의 발상에 여러가지 설이 아직도 난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농촌경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가 아니라도 경제에 대한 일반적 지식만 있는 이들에게 쉽게 읽힐 수 있는 경제서가 많다. 「식량정책의 어제와 오늘」(김한근, 동아출판사) 「한국 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박현채 외, 돌베개) 「농업인력 올바른 인식과 대책」(김호탁 외, 농민신문사) 「한국농업의 위기와 재편 방향」(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창작과 비평) 「한국농업문제의 이해」(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길사) 「농업경제의 실상과 허상」(유인호, 평민사) 「한국의 농업문제」(김문식, 평민사) 「농의 가치와 역할」(성진근, 을유문화사) 「한국농업 농민문제 연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연구사)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 책들은 대부분 정부의 농업정책, 농업인구, 농촌경제 등을 다루고 있는 연구 논문서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농업정책은, 여러 책에 의하면,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증산’을 제1목표로 출범한 공화당정권의 박



쌀시장 개방 철회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집단체위.

정희 대통령도 새마을사업을 펼치기는 했지만 농민들을 위한 농정이기보다는 현대화라는 이름하에 공업화를 서둘러 왔던 것이며, 우리의 공산품 수출을 위해 외국의 농산물이 유입되는 것을 용인하는 정책이 결국 농촌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 책에서 볼 수 있는 주장이다.

정부의 정책에 농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양하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삶이요, 고향입니다」(김영기, 태일) 「저 흙 속에도 신바람을...」(성진근, 을유문화사) 등은 농촌의 정서를 대변해주고 있다. 「농민 이야기 주머니」(조성우, 녹두) 「6공농정 왜 F학점인가」 「농촌을 살리는 길 52가지」(장원석, 정암문화사) 「누구나 알아야 할 농업문제 90문 90답」(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창작과비평) 등은 자서전, 칼럼집, 풀어쓴 농촌 이야기, 문답식 해설서 등의 형식을 빌어 우리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누구나 알아야 할...」의 한 대목을 보면 미국이 식량을 무기화한 예로 1980년 6월부터 81년 4월까지 실시한 대소곡물금지조치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미국은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의 보복조치로 곡물금지조치를 내려 소련의 국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한다. 창작과비평사의 이춘호씨(영업부)는 이 책이 “쌀 수입개방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보다 두 배 정도 더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농민보다 도시의

학생이나 진보적 지식인들이 더 많이 찾고 있다”고 밝힌다.

농업구조 변화의 당위성 주장하기도

한편 여론조사를 통해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주는 책도 최근에 발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농민의 불안과 희망」(김일철 외, 서울대출판부)이 그것이다. 1992년 6월말에 농민 5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농민의식조사 결과를 분석해 놓았는데 제목 그대로 농민의 ‘불안’과 ‘희망’사항을 볼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전체의 80.4%가 자식이나 마을의 청년들이 다른 직업을 얻기 위해 도시로 떠나려 하면 이를 권장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 이유는 ‘농업의 전망이 어둡기 때문’ (67.5%)이다. 또 농지를 새로 구입하여 늘릴 계획이 없는 사람이 70.6%이다. 농민들이 농사일에서 어려운 점은 일손부족(34.8%)과 불안정한 수매가격(25.4%)을 꼽고 있는데 이는 과다한 노동이 어렵다고 응답(11.6%)한 경우보다 많은 것이다. 농민들은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도 어둡게 생각한다. 5년후의 생활수준이 지금과 같거나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78.8%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사람과 비교해 자신들의 생활수준이 못사는 편(86.1%)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의 농업정책은 현실의 농업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67.6%), 농산물 수입개방압력에 대해 정부가 ‘미국 등 강대국의 요구에 너무 쉽게 굴복

하고 있다'(74.8%)고 응답했다.

1986년 9월 우루과이 폰다 델 에스테에서 가트 각료들이 모여 '기존 교역상품 분야의 자유무역 추진'을 골자로 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현재 농민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우루과이라운드다. 다자간협상으로 1990년까지 타결키로한 우루과이라운드는 농산물 등 각종 무역품목에 대한 국가간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에 이르렀다.

「미국 통상정책의 기만성」(제임스 보봐드, 비봉) 「가트와 농산물교역」(농협 중앙회) 「수입개방과 한국농업」(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비봉) 「수입개방압력과 농업」(일본전국농협 중앙회, 협동연구원) 「소-개방의 갈등과 새로운 도전」(김영철 외, 농민신문사) 「쌀, 어떻게 지킬 것인가」(김성훈 외, 농민신문사) 등에서는 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와 이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 통상정책의 기만성」을 쓴 제임스 보봐드는 책 '서론'에서 "공정무역이란 말은 20세기 최대의 지적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책 전반에 걸쳐 미국이 '공정'이라는 미명하에 실시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미국의 입김에 좌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중 참깨값이 국제가격의 13배, 벌꿀은 8배 등이며 쌀은 미국의 칼로스에 비해 5~6배 정도 더 비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방 이후 우리의 농산물이 설 땅을 찾기 힘들어진다. 일례로 미국의 밀가루 수입이 이루어지자 우리의 밀농사가 사라졌던 것도 주지해야 할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하에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농산물먹기 운동. '신도불이'라는 대중가요가 요즘 부쩍 인기라고 하는데 출판가에서는 「우리 체질엔 우리 농산물」(권원달, 농민신문사)이라는 책이 관심을 끈다. 우리 농산물이 우리의 몸에 좋은 이유는 간단하다. 생명체가 한 곳에 번식해 살고 있는 것은, 필요로 하는 먹이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 쌀은 밥맛이 일본의 고시카키리나 미국의 칼로스보다 훨씬 좋고 방부제 등을 섞지 않아 안전하다며 우리쌀을 자랑한다. 하지만 우리 농산물을 먹는 것도 한계는 있다. 우리 농업을 구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각종 이론서들은 말한다.

「일촌일품운동」(유준상, 동광) 「미래의 농장」(김종무, 유한문화사) 「벼랑위의 우리농업 어떻게 구할 것인가」(이호철, 한길사) 「한국농업이 길로 가야한다」(한국농업의 장래를 연구하는 모임, 비봉) 「선진농정」(주정화, 지혜원) 등의 책에서는 쌀을 대신해 우리 실정에 맞는 농작물을 재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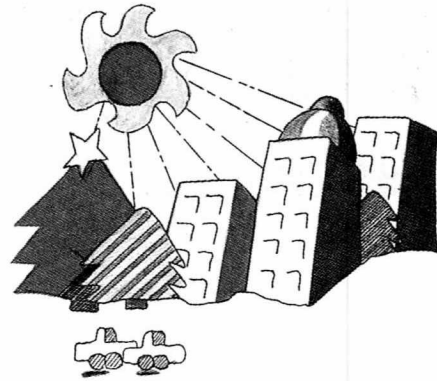
한편 「최신 농업경영학개론」(심영근 외,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 마케팅개론」(전태곤, 전남대출판부) 「상업화와 농업경제」(이호철, 한길사) 등의 책에서는 우리 농업도 합리적 경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씌어진 책이다. 즉 다품종 소량생산의 생계영농, 노동집약적인 벼중심 영농형태에서 벗어나 미국과 같은 산업적 농업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돌아가는 농촌’은 과연 가능한가

예부터 농촌이 피폐해지면 민란이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갑오농민전쟁이다. 이외에도 「농촌사회변동과 농민운동」(이준식, 민영사) 「한국근대농촌사회와 농민운동」(장시원 외, 열음사) 「소과동백서」(김서정, 동광) 「전통시대의 민중운동」(풀빛편집부) 「1862년 농민항쟁」(망원한국사연구소, 동녘) 「한국근대농민항쟁사」(조상제 외, 느티나무) 「농민층분해와 농민운동」(서울대사회학과사회발전연구회, 미래사) 「식민지시대사회성격과 농업문제」(오미일, 풀빛)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지수걸, 역사비평사) 등의 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민란들을 살피고 있는데, 그 공통점은 적어도 농민이 못살았을 때 민란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허신행 장관도 지적하고 있다. 로마제국의 몰락과 대영제국의 쇠락 그리고 고려의 흥망 등이 이루어진 시기에는 농토가 황폐했다는 사실을. 허 장관은 자신의 책 에필로그에서 "21세기에는 농민의 시대, 부농의 시대, 전원적인 농촌의 시대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는다"라고 적고 있다. 허 장관의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제 우리 온 국민의 관심거리가 되어 있다.

—이성수 기자



광화문 네거리의 늘 푸른 소나무로 서 있고 싶습니다

꼬-끼-오-

새해 벽두를 알리는 닭들의 울음소리가
잠들었던 강산을 흔들어 깨우고,
소박한 꿈과 건강을 기원하며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야-호 소리가
온 도시에 찌렁찌렁 울려 퍼집니다.
새해에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 한술의 새해는
한 그루 넉넉한 소나무의 정신에서
출발하려 합니다.
변함없는 노력과 꾸준한 의지로써
광화문 네거리의
늘 푸른 소나무로 서 있고 싶습니다.



나태한 정신을 서릿발처럼 일깨우는, 보석처럼 빛나는 영혼의 진주.
여러분의 원고를 더욱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드리십시오.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세종문화회관 뒤) 대표전화 : 735-4997 팩스 : 722-3866